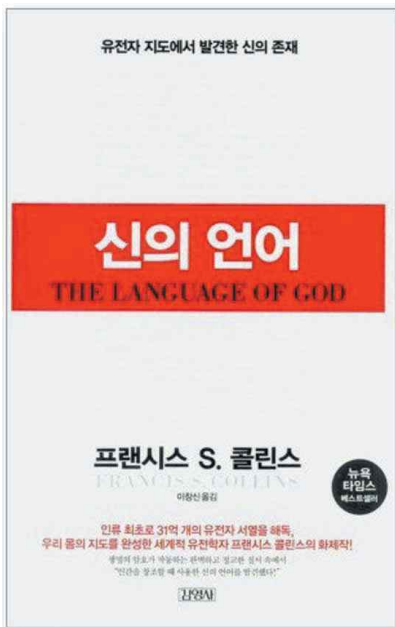


서

평

『신의 언어』를 읽고

이 글은 <목회와 신학> 3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유정철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

새천년을 맞은 2000년 6월 27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인간게놈프로젝트> 초안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준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선물에 깃든 복잡성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연설했다. 이 연설을 낭게 한 장본인은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국립인간게놈연구소(NHGRI) 소장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박사였다. 그로부터 6년 후, 콜린스 박사는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신의 존재에 대해 쓴 책 『신의 언어』를 출간했다. 『신의 언어』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한다.

이 책에서 콜린스 박사는 생물학뿐 아니라 의학도 진화론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게놈 연구를 하다보면 인간도 다른 생물들과 조상이 같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과 생쥐의 게놈을 비교해 보면, 두 게놈의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같고, 단백질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들도 놀랄 정도로 비슷하며, 인간과 생쥐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순서도 긴 DNA 가닥을 따라 일치한다고 말한다. 생물들 간의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 무신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라고 소리 높이지만, 콜린스 박사는 이러한 생물 게놈 사이의 유사성은 신이 훌륭한 설계 원리를 반복해 사용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콜린스는 『신의 언어』에서 무신론, 불가지론, ‘젊은지구창조론’, 지적설계론, 유신론적 진화론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그는 무신론에 대해 말한다. 무신론자로 대변되는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에서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신학에서는 무신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눈먼 시계공』에서 “진화론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나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심지어 사악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로 진화론을 복음으로 생각해 세계 모든 종족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는 자신의 책을 읽게 되면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이 책을 덮을 때 즈음엔 이미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는 “세상에 에이즈 바이러스와 ‘미친 소’ 병이나 기타 여러 질병들이 유행하면 종교는 이를 두고 말세라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 신앙만한 악은 없으며 해악의 정도에서 보면 천연두 바이러스와 비견될 수 있지만 제거하기 어려운 정도로 치면 천연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분명하다”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도 그의 책 『인간 본성에 관하여(On Human Nature)』에서 진화는 모든 종류의 초자연주의에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과학적 자연주의가 향유하는 최후의 결정적 우위는 그것의 주요 경쟁 상대인 전통적 종교를 순전히 물질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올 것이다. 신학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지적인 학문으로 살아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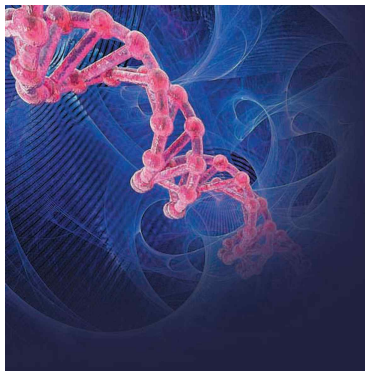
무신론자들이 종교에 대해 공격하는 3가지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화론으로 생물과 인류의 복잡성과 기원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신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 둘째, 종교는 반이성적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해악이 저질러졌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콜린스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이 결코 신앙의 진실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 무신론이 창궐하는 때는 과학이 발전한 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악행들이 행해진 때였다.

저자는 ‘불가지론자(agnostic)’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불가지론자’란 말은 다윈의 충실한 지지자로 ‘다윈의 불독’으로 불리는 토머스 헨리 헉슬리가 1869년에 만든 말이다. 그는 “내가 무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 범신론자인지, 유물론자인지 관념론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자유사상가인지를 자문했을 때 어떤 그노시스, ‘gnosis(영적 인식)’을 얻었다고 하는 교인들과는 달리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서

평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없이 적절해 보이는 ‘agnostic(애그노스틱, 불가지론의)’란 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불가지론자들이란 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이다. 아마 진화론을 제창한 다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불가지론자들은 실제 그럴 듯해 보이는 무신론자일 뿐이고, 무신론자는 공격적으로 보이는 불가지론자들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의 언어』에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창조론 중 ‘젊은 지구창조론’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젊은 지구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1만 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젊은 지구창조론자’들이 만든 박물관이나 테마공원에는 인간과 공룡이 즐겁게 노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공룡이 모두 멸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콜린스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말하면서 과학적 결과를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자들일까, 욕되게 하는 자들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이 자연에 관한 거짓에 기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젊은 지구창조론자’들을 공격한다.

창조론 중 ‘지적설계론’은 미국 내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온 시기에 나온 창조론의 한 유파이다. ‘지적설계론자’들은 현대 진화론이 특정 우주와 생명체의 형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파고들어, 그것이 지적설계자의 개입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들은 ‘젊은 지구론’에 반대하는 한편 진화론적 자연주의에도 반대한다. 콜린스는 지적설계론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이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과학이론으로 자리 잡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콜린스는 지적설계론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영역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성을 상정하는 일종의 ‘빈틈을 메우는 신’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전지전능

한 존재'를 태초에 생명의 복잡성을 직접 계획해 놓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간섭하는 어설픈 창조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지적설계론'은 과학적 사실과 이론들을 사용하여 진화론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잘 지적하므로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이론처럼 들린다. 그러나 '젊은지구론'처럼 다시 '창조냐 진화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흑백논리로 귀결되어 버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신의 언어』의 저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론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주장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생물과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므로 이들의 창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진화론적 자연주의에는 반대하는 한편, 생명체와 우주의 형성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느냐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기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진화와 같은 과학의 발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창조세계의 진화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생물들의 놀라운 적응 능력과 변화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콜린스는 교회가 진화라는 말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설명할 기회조차도 가지기 힘든 상황과 창조를 부정하는 그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젊은지구창조론'을 믿게 되면 창조-진화 논쟁에서 진화적 자연주의자들에게 생명과 우주의 형성 체계원리를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비쳐져 앞으로 교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콜린스가 주장하듯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게 되면, 날마다 보도되는 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발견들이 신앙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다고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콜린스의 주장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연주의적 방법론에 빠지게 되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에는 눈을 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배제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콜린스가 '바이오로고스'라고 부르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창조론의 한 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교회는 창조론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논쟁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아직도 논쟁 중인 한 견해만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선포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또 다른 지적 교만이고 잘못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젊은지구창조론'에 빠져있다고 콜린스는 말한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맞추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만 우리는 점점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논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지식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모욕 주고 왕따 시키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는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점검해볼 시기가 되었다.